

#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김도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happiness and children's happiness

Do-Hee Kim  
Ph.D. Candidate, Dep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조사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1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수집된 2,551부의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가 느끼는 행복은 자녀가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행복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녀의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행복은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하며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우울을 낮추고 행복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행복,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happiness and children's happiness. To this end,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er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implemented based on 2,551 data collected from fourth-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s. The happiness felt by the paren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happines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children's depression. And, the happiness felt by the parents was found to affect the happiness of children by sequentially progressing throug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Such results reflect how parents who perceive themselves to be happy tend to be warm, provide structure, and support the autonomy of their children. This also shows how suc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encourage children to believe that they are valuable individuals and how this plays a role in reducing their sense of depression and enhancing their happiness.

Key Words : Happiness,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Depression

\*This manuscript is modified and supplemented of the presentation for The 10th Conference o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dminister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Do-Hee Kim(mksbuf@naver.com)

Received December 9, 2021

Revised February 9,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 1. 서론

국내 결혼과 출산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경제적 어려움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아동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1]. 인간의 감정과 미덕, 긍정적인 정서를 탐구해 온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높은 행복 수준이 향후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2]. 대표적으로 확장-구축 이론에서는 즐거움, 감사, 흥미, 평온,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도록 촉진하며 최종적으로 사회적인 유대감과 신체·심리·사회적 자원을 구축하는 자원이 되어 생존과 행복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3]. 이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아이들은 외부의 자극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한 행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도 더 잘 적응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관심을 가져 왔다[4].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배경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또래나 부모가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기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5-7].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양육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공해 주기는 하나 자녀가 보이는 부적응이나 낮은 행복의 원인을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귀인하게 하는 데 그쳐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부모의 개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였다. 즉, 부모 교육과 중재의 효과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개인 내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부모의 행복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보이는 행동이나 양육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8]. 이 중 따뜻함,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의 세 가지 양육 태도는 자녀의 동기를 촉진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로 제시된다[8]. 구체적으로 따뜻함은 부모로부터 사랑 받고 반가운 존재로 경험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9]. 구조 제공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규칙과 이치를 설명해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양육태도는 자녀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계획과 규칙에 맞게 행동하도록 도와 학습 동기와 성과를 높이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자율성 지지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으로 경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자유 의지와 독립성을 키워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기 조절력을 높이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아울러 자신의 부모가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하며 자율성을 지지해 준다고 평가하는 아동들은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5]. 그러나 안정적인 행복감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기여하는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행복은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으로 잘 예측된다고 하였다[2-7, 12].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13]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행복의 관계 안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14]. 아울러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관련된 신념, 규칙, 기대를 포함하는 인지적인 요소이면서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15]. 이와 관련하여 생애 초기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달되는 특징이 있으며 부모가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해주며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와 구조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감을 갖게 하여 보호받는 느낌을 제공하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그러한 판단이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견해를 갖기 쉬우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인지는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16]. 이를 반영하듯 여러 연구결과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이 우울을 덜 경험하고 행복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6, 17].

우울은 슬프고 외로운 기분에 휩싸이며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흥미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18]. 또한 개인에 따라 수면과 식욕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집중력이 감소되고 무가치감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18]. 특히 아동의 우울은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9],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2].

Kim[19]은 부모의 긍정적이지 못한 양육태도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을 비롯한 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저해한다고 하였다. 즉,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존중을 받고 자란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확고한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행복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잠재변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양육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로 여겨져 부모의 행복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다.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부모들에게서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20, 21]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은 장애가 있거나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부모들이 온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22], 이는 부모의 자기보고로 평정된 것이므로 행복에 의한 긍정적 편향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부모의 행복과 긍정적 양육태도의 세 가지 요인과의 관련성을 추론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설명하는 것이 부모가 그러한 양육을 제공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저항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 행복, 자아존중감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23-25]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 및 양육태도와 행복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16, 2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개별적인 경로를 검증하는 것에 그쳐 각 변인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변인 간 관계 안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축-확장이론[3]에 근거하여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개발하도록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함으로써 부모의 행복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 기제를 고려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에 따라 정서가 유발된다는 인지행동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15].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체계적 맥락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정서, 태도, 인지,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잠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Fig. 1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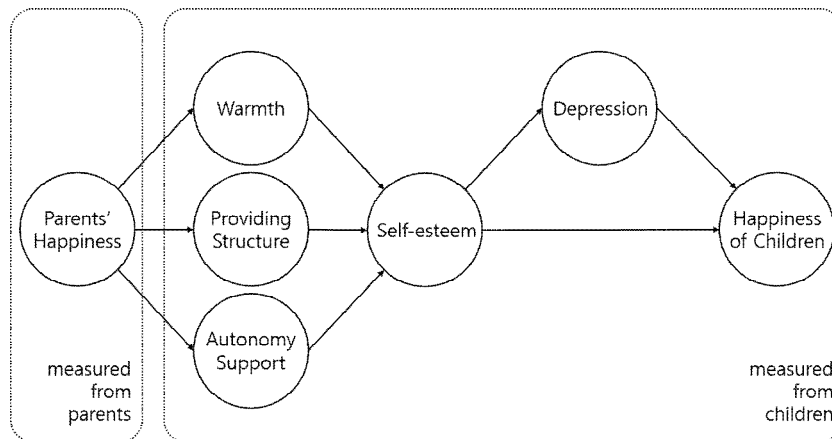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행복을 높이기 위한 중재나 교육의 적절한 목표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행복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 행복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와 자녀의 행복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방법

### 2.1 연구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의 1차 연도 자료[27]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KCYPS 2018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집락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171개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07명과 그들의 보호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는 조사자와 1:1로 대면하여 태블릿 컴퓨터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자료를 제외한 2,55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학생이 1,289명(50.5%)이고 여학생이 1,262명(49.5%)이며 보호자 설문 응답한 사람 중에는 모가 2,312명(90.6%)이고 부가

239명(9.4%)이다.

### 2.2 측정 변인

#### 2.2.1 행복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 문항[28] 중에서 역 채점 문항을 제외한 3개의 긍정 문항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행복을 각기 측정하였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개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나는..’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의 1점부터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개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부모의 행복이 .77, 자녀의 행복이 .8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 2.2.2 긍정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29]의 문항을 활용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따뜻함, 거부, 구조 제공, 비밀관성, 자율성 지지, 강요의 6가지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따뜻함,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의 3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12개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따뜻함이 .91, 구조 제공이 .72, 자율적 지지가 .95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구조를 제공해주며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지지해준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 2.2.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14] 척도를 변안한 문항을 활용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축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3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 2.2.4 우울

본 연구에서는 정신진단검사[30] 중에서 우울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우울을 측정하고자 한다. 원척도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축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성이 높게 나타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의 3개 문항을 사용하고 자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6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감정으로 인하여 흥미와 관심을 상실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 2.3 자료 분석

IBM SPSS Statistics와 Amos v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값을 산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 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원자료에서 5,000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하고 최대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추정된 모수 값의 신뢰구간 95% 이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모형의 적합도는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의 세 가지 값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며 TLI와 CFI값이 .95이상이고, RMSEA값이 .06이하일 때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31]. 그리고 연구 변인 간의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을 확인하고자 하며 AVE값이 .50이상이고 CR값이 .70이상일 때 수렴 타당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32, 33]. 또한, 두 연구 변인의 AVE값이 상관계수를 제외한 값보다 클 때 판별 타당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33].

## 3. 결과

### 3.1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축요인분석을 통해 전체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3가지 문항을 선별하여 잠재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에 각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측정모형을 분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784.116$ ,  $df=231$ ,  $p<.001$   $\chi^2/df=3.394$ , TLI=.977, CFI=.981, RMSEA=.031로 보고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구조 제공과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AVE 값이 .50이하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AVE 값이 잠재변인 간 상관의 제곱 값을 상회하고 CR값이 .70이상이며 내적합치도가 .70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즉, 변인 간에 서로 잘 변별되고 있으며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으로 변인 간 관계를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간주하였다.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1	2	3	4	5	6	7
1. Parents' happiness							
2. Warmth	.02(.00)						
3. Providing structure	.02(.00)	.10(.01)					
4. Autonomy support	.02(.00)	.18(.03)	.11(.01)				
5. Self-esteem	.03(.00)	.12(.01)	.07(.00)	.11(.01)			
6. Depression	-.02(.00)	-.13(.02)	-.08(.01)	-.12(.01)	-.19(.04)		
7. Happiness of children	.03(.00)	.13(.02)	.08(.01)	.13(.02)	.18(.03)	-.20(.04)	
AVE	.56	.72	.43	.59	.47	.52	.59
CR	.79	.91	.74	.85	.73	.76	.81
Cronbach's $\alpha$	.77	.91	.72	.95	.73	.76	.80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represents the squared value of the correl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1	2	3	4	5	6	7
1. Parents' happiness							
2. Warmth	.15***						
3. Providing structure	.12***	.53***					
4. Autonomy support	.15***	.71***	.55***				
5. Self-esteem	.15***	.46***	.33***	.43***			
6. Depression	-.11***	-.39***	-.29***	-.37***	-.54***		
7. Happiness of children	.18***	.48***	.38***	.48***	.60***	-.54***	
Mean	3.07	3.56	3.31	3.50	3.37	1.44	3.40
Standard Deviation	.42	.53	.51	.53	.59	.57	.54
skewness	.11	-1.19	-.55	-.99	-.75	1.39	-.83
kurtosis	1.60	1.11	.64	1.12	.10	1.83	.86

\*\*\*  $p < .001$

### 3.3 연구 변인의 일반적 특성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부모 행복의 평균은 3.07이고, 자녀 행복의 평균은 3.40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대체적으로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점수가 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31부터 3.56사이로 보고되었으며 우울의 평균은 1.44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댓값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부모의 행복은 긍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따뜻함( $r=.15, p<.001$ ), 자율성 지지( $r=.15, p<.001$ ), 구조 제공( $r=.12, p<.001$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행복( $r=.18, p<.001$ )과 자아존중감( $r=.15,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녀의 우울( $r=-.11, p<.001$ )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따뜻함( $r=.46, p<.001$ ), 자율성 지지( $r=.43, p<.001$ ), 구조 제공( $r=.43, p<.001$ ),

자녀의 행복( $r=.15,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우울( $r=-.54, p<.001$ )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우울은 행복( $r=-.54, p<.001$ ), 따뜻함( $r=-.39, p<.001$ ), 자율성 지지( $r=-.37, p<.001$ ), 구조 제공( $r=-.29, p<.0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구조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델링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 적합도는  $X^2=885.765, df=240, p<.001, X^2/df=3.691, TLI=.974, CFI=.978, RMSEA=.032$ 로 보고되어 기준을 충족하였다.

부모의 행복은 자율성 지지( $\beta=.18, p<.001$ ), 따뜻함( $\beta=.17, p<.001$ ), 구조 제공( $\beta=.16, p<.0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따뜻함( $\beta=.32, p<.001$ ), 자율성 지지( $\beta=.26, p<.001$ ), 구조 제공( $\beta=.13, p<.001$ )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3.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way	<i>b</i>	SE	<i>t</i>	$\beta$
Parents' happiness→Warmth	.27	.04	7.134***	.17
Parents' happiness→Providing structure	.17	.03	6.076***	.16
Parents' happiness→Autonomy support	.28	.04	7.452***	.18
Warmth→Self-esteem	.30	.04	8.275***	.32
Structure→Self-esteem	.18	.05	3.819***	.13
Autonomy support→Self-esteem	.25	.04	5.812***	.26
Self-esteem→Depression	-.95	.04	-25.202***	-.75
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81	.05	17.277***	.74
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12	.03	-3.597***	-.13

\*\*\*  $p < .001$

Table 4. Results of bootstrap on the pathways in which parents' happiness affects children's happiness

Pathway	<i>b</i>	SE	BC 95% CI [Lower, Upper]
Parents' happiness→Warmth→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06	.01	.04, .10
Parents' happiness→Warmth→Self-esteem→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01	.003	.003, .02
Parents' happiness→Providing structure→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03	.01	.01, .05
Parents' happiness→Providing structure→Self-esteem→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003	.002	.001, .01
Parents' happiness→Autonomy support→Self-esteem→Happiness of children	.06	.02	.03, .09
Parents' happiness→Autonomy support→Self-esteem→Depression→Happiness of children	.01	.003	.003, .02

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우울( $\beta = -.75, p < .001$ )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 $\beta = .75, p < .001$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울은 행복( $\beta = -.13, p < .001$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모의 행복이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우울을 거쳐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경로에 대한 추정된 모수 값의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삼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b*)를 살펴보면, 부모의 행복이 따뜻함과 자율성지지,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우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중심적으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행복이 높을수록 자녀가 평정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점수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과 행복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행복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들의 자녀는 부모가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안내를 제공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부모의 행복이 높을수록 권위 있는 양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22], 긍정적인 양육을 제공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34]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각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이 자녀가 지각하는 수준에서의 부모양육태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녀가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모의 자녀가 자아존중감과 행복 수

준이 더 높고, 우울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행복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우울이 높을수록 행복은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선행연구[15]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우울뿐만 아니라 행복한 정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용서, 감사, 몰입, 의미, 이타주의, 낙관주의를 비롯한 긍정적인 정서와 강점을 증진하는 접근을 통해 행복을 가르치고 쟁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35]. 구체적으로 감사 편지 쓰기과 매일 세 가지 좋았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같은 중재가 아동의 행복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36].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아동을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중재와 함께 자기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우울하거나 외롭고 무기력한 감정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복 수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둘째,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와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삼중매개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행복은 따뜻함,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매개로 하거나 직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24]를 지지한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개발하도록 동기화하며 긍정적인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성장해나가도록 돕는다는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양육행동 레퍼토리를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확장-구축이론은 주로 아동의 긍정적 특성을 키워주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연구자들 또한 아동의 강점과 긍정 정서를 키워주는 긍정적 양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3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긍정적인 정서가 양육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데 이 이론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양육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행복과 강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코칭, 상담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행복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Won et al[38]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명상, 마사지, 편지쓰기, 역할극 등을 비롯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몰입, 의미, 성격 강점,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부모와 유아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가족에 단위의 긍정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국내 자료가 미흡하고[39], 행복과 긍정적 특성의 개념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행복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긍정적 양육태도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긍정적 양육이란 자녀의 감정을 확대하고 구축하게 하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로 정의된다고 지적된다[37].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부모의 태도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아동의 행복과 긍정적 특성의 개념을 점검하고 그러한 요소를 증진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학업이나 활동, 일에 몰입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제안된다[40]. 이에 비추어보면 자녀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몰입과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행복한 부모는 따뜻함과 지지적인 태도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나 프로그램 기획자는 부모의 행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예로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의 경우,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참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강조하기에 앞서 부모의 행복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행복을 가르치는 긍정심리학적 중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



구비 지원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과 학교 정규교육과정 안에 우울과 행복에 관한 교육을 포함 시켜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 관련 서비스에 친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요인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변인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관계패턴을 개념화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작업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아존중감과 행복이 개인적인 평가와 지각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는 개입이 행복을 높이기 위한 중재의 목표로 유용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생각하는 행복, 자신, 삶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점검하고,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도록 노력한다면 이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의 행복이 구조제공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을 거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효과크기가 다른 경로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양육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중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르게 말하면,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구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 혹은 신경발달장애나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는 효과적으로 훈육하고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높이도록 돕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 과정에서 그들의 행복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개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병행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로부터 동시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며 부모와 자녀가 각기 지각하는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미 설문조사가 완료된 패널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녀가 평정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와 모 중에서 누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성별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행복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중단적인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1).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November 30, 2021, from <https://stdict.korean.go.kr/>
- [2] M. L. Kern, L. Benson, E. A. Steinberg & L. Steinberg. (2016). The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 *Psychological Assessment, 28*(5), 586–597. DOI: 10.1037/pas0000201
- [3] B. L. Fredrickson. (2013). Positive emotions broaden and build. In E. A. Plant & P. G. Devine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53). Burlington: Academic Press. DOI: 10.1016/B978-0-12-407236-7.00001-2
- [4] R. Gilman & S. Huebner.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 [5] Y. E. Mun & J. Y. Lee. (2021).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conversation hours between parent and child on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7*(1), 85–104. DOI: 10.14698/jkce.2021.17.01.085
- [6] B. López-Pérez & E. L. Wilson. (2015). Parent-child discrepancies in the assessment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happine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39*, 249–255. DOI: 10.1016/j.jecp.2015.06.006
- [7] A. Maftai, A. C. Holman & E. R. Cãrlig. (2020). Does your child think you're happy?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parenting styl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5*, 105074. DOI: 10.1016/j.childyouth.2020.105074
- [8] E. Skinner, S. Johnson, & T. Snyder.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DOI: 10.1207/s15327922par0502\_3
- [9] K. M. Moran, N. A. Turiano & A. L. Gentzler. (2018). Parental warmth during childhood predicts coping and well-being in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5), 610–621. DOI: 10.1037/fam0000401
- [10] M. S. Farkas & W. S. Grolnick.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3), 266–279. DOI: 10.1007/s11031-010-9176-7
- [11] R. M. Ryan, E. L. Deci, W. S. Grolnick & J. G. La Guardia. (2006). The significance of autonomy and autonomy support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 (pp. 795-849). NJ: John Wiley & Sons.
- [12] R. Baiocco, V. Verrastro, L. Fontanesi, M. P. Ferrara & J. Pistella. (2019). The contributions of self-esteem, loneliness, and friendship to children's happiness: the roles of gender and age. *Child Indicators Research*, 12(4), 1413-1433. DOI: 10.1007/s12187-018-9595-7
- [13]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DOI: 10.1037/0003-066X.55.1.34
- [14]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5] A. T. Beck & E. A. Haigh. (2014). Advances in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the generic cognitive model.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0, 1-24. DOI: 10.1146/annurev-clinpsy-032813-153734
- [16] D. H. Kim. (2020). A correlation model of parents, children, teacher and peers: focusing on the emotional behavior problems, self-esteem, cooperation, and gender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7(4), 43-66. DOI: 10.35734/karp.2020.27.4.003
- [17] S. Lyubomirsky, C. Tkach & M. R. DiMatteo. (2006).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3), 363-404. DOI: 10.1007/s11205-005-0213-y
- [1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
- [19] S. S. Kim. (201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hildren's happiness and their depress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4, 91-108.
- [20] S. G. Hong, J. H. Tak & H. M. Kang. (2014). Effect of happiness on parental stress and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satisfaction level.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0(2), 73-91. DOI: 10.14698/jkce.2014.10.2.073
- [21] E. J. Park, J. K. Park & E. R. Kim. (2018). Parenting efficacy and happiness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0(4), 123-143. DOI: 10.21075/kacs.2018.20.4.125
- [22] G. H. Kim. (2019). The effect of parent's happiness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6, 1-20. DOI: 10.37918/kce.2019.05.116.1
- [23] S. M. Kim, H. Y. Ko, S. H. Park & E. J. Yang. (2012).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meta-analysi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8(4), 533-555.
- [24] N. Acun-Kapikiran, Ö. Körtükcü & S. Kapikiran. (2014). The relation of parental attitudes to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4(4), 1246-1252.
- [25] W. Y. Kim & K. S. Kim. (2020). The effect of overprotective parent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aggression among korean yout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7), 77-103. DOI: 10.22251/jlcci.2020.20.7.77
- [26] M. Y. Lee. (2020). Effects of parenting style on feeling of well-being of adolescents: mediator effects of self-esteem. *Forum For Youth Culture*, 64, 115-135. DOI: 10.17854/ffyc.2020.10.64.115
- [2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Retrieved November 30, 2021, from <https://www.nypi.re.kr/>
- [28] J. R. Lee, G. S. Kim, S. Y. Song, Y. J. Lee, J. M. Kim & S. K. Kim. (2015).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5*.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9] T. M. Kim & E. J. Lee.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13-333. DOI: 10.21509/KJYS.2017.03.24.3.313
- [30] K. I. Kim, J. H. Kim & H. T. Won. (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Chungang Aptitude Publishing.
- [31] D. Hooper, J. Coughlan & M. Mullen.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1), 53-60. DOI: 10.21427/D7CF7R
- [32] J. C. Anderson & D. W. Gerbing.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DOI: 10.1037/0033-2909.103.3.411
- [33] C. Fornell &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DOI: 10.1177/002224378101800104
- [34] E. M. Park & S. S. Lee. (2016). A study on parenting attitude and happiness of young children's fath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2), 239-262.
- [35] T. Rashid & M. P. Seligman. (2018). *Positive Psychotherapy: Clinician Manual*. NY: Oxford University Press.
- [36] V. R. Weersing, M. Jeffreys, M. C. T. Do, K. T. Schwartz & C. Bolano. (2017). Evidence base update of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6(1), 11-43. DOI: 10.1080/15374416.2016.1220310

- [37] T. A. Kyriazos & A. Stalikas. (2018). Positive parenting or positive psychology parenting?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of positive psychology parenting. *Psychology, 9*(7), 1761-1788.  
DOI: 10.4236/psych.2018.97104
- [38] G. H. Won, K. S. Jae & H. J. Kim.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happiness of pare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0*(3), 39-67.  
DOI: 10.30528/jolss.2020.10.3.003
- [39] Y. S. Choi. (2015). Connections between family therapy and positive psychology. *Family and Family Therapy, 23*(3), 401-419.  
DOI: 10.21479/kaft.2015.23.3.401
- [40] M. Csikszentmihalyi. (2013). *Flow: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Y: Random House.

김도희(Do-Hee Kim)

장학



- 2021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 전공) 박사수료
- 관심분야 : 미술심리재활, 상담심리
- E-Mail : mksbuf@naver.com